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교

은선경
KC대학교 사회복지학부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on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 Compared Elementary School Student and Middle School Students

Sun Kyoung Un
Dept. of Social Welfare, KC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여 차이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5차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데이터를 통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 4,092명의 자료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수용성의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이 중학생보다 높았다. 둘째, 초등학생과 중학생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은 어머니의 학력, 삶의 만족도, 또래관계, 교사관계, 공동체 의식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관적 학업성적, 지역사회인식, 문화적 활동경험, 해외방문경험이 발견되었으나, 중학생의 경우에는 가족 및 단체여행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적절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중학생들에게는 공동체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또래관계 증진 등의 그룹프로그램에 다문화이해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에게는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과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중심의 비교과 프로그램, 다문화 강사 등을 통한 다문화이해교육 및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을 교과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different improvement practices of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o compare the factors influencing multicultural acceptability with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come from the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tudy(KCYPS) of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NYPI) comprising 4,092 responses from 5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4th grade(middle school 2nd grad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study data were subjected to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give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Level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Second, factors influencing multicultural acceptabilit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middle school students were different. Common factors were mother's education level, life's satisfaction, peer relationship, teacher relationship, and spirit of community. Factor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were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community awareness, experiences of cultural activity, and overseas visiting experiences. The factor for middle school students'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was family/group travel experiences. Our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programs and education that are suitable for children's developmental level. Such peer group programs need to be offered for middle school students to achieve spirit of community and educational group program and various extracurricular activities to achieve community awareness and develop a spirit of communit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Keywords : multicultural acceptability, spirit of community, life satisfaction, peer relationship, teacher relationship, community awareness

*Corresponding Author : Sun Kyoung Un(KC Univ.)

Tel: +82-2-2600-2545 email: imokurok@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23, 2016

Revised October 6, 2016

Accepted October 7, 2016

Published October 31, 2016

1. 서론

2016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2006년 9,389명, 2008년 20,180명, 2010년 31,788명, 2012년 46,954명, 2014년 67,806명, 2015년에 82,536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1]. 다문화가정 학생은 2014년에 비해 21.7%가 증가하였고, 계속해서 그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지속적인 증가는 우리사회로 하여금 다문화 배경의 구성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아닌 공존과 조화를 위한 관심과 인식, 태도의 변화를 요구한다[2]. 다문화 배경의 구성원들에 대한 관심과 인식, 태도변화는 지구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상호공존을 위한 필요이고[3], 편견과 차별이 배제되지 않을 때 집단간 분열과 갈등, 긴장의 심화로 인한 사회문화적 발전의 잠재력을 훼손시킬 수 있음을 최근의 유럽의 국제적 이슈들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관심은 2000년 후반부터 다문화정책을 통해 각 부처별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교육부는 2009년 이후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 모두를 위한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였는데, 2010년에 타문화 이해와 존중의 내용을 교과서에 개발하여 보급하고, 2011년에 다문화 교육내용이 범 교과 학습 요소로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교육부의 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 다문화 아동들의 학교폭력비율, 사회적 차별, 학업 중단정도 등이 높게 나타났고[4],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적 태도가 국제적 비교에서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며[5, 6], 동남아 및 북한이탈주민에게 사회적 거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7].

그러나 다문화 아동들에 대한 종단적 변화를 추적한 연구[8]는 부모님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는 다문화아동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는 다문화아동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문화 아동들의 교우관계가 좋아지고 있으며, 집단 괴롭힘의 피해도 감소하고 또래 친구들의 지지가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다문화 아동들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문화 아동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가족요인 이외에도 친구와 교사집단의 지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는 주변의 다문화아동을 얼마나 지지하는가, 수용하는가가

다문화 아동의 적응과 발달에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문화아동에 대한 또래의 지지가 다문화 아동들로 하여금 또래관계, 학교적응 등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들을 볼 때,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며,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는 다문화 아동들의 적응을 도모하는 기회가 되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한국의 주류문화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도 다문화적 환경을 수용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발달단계별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다. 그렇다면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입도 다르게 제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를 살펴보고,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5학년학생들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초등학교 5학년학생들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선행연구

2.1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수용성은 공존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중요한 개념이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문화적 인정과 존중의 태도, 그 사람들을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열린 태도와 관련한다.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다문화수용성은 자신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정도라고 정의되어[9, 10] 사회적 거리감의 개념과 관련되며,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관계정도가 고려되는 개념으로 정의되기

도 하였다[11].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기도 하였다[12].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개념은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지, 정서, 행동적 요인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정의되는데, 문화차이를 인식하고 편견없는 태도를 나타내는 인지적 요인과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며 타 문화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정서적 요인, 그리고 문화적으로 다른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행동적 요인을 포함하는 것이다[13]. M. J. Kim[13]은 다문화 사회구성원으로서 문화차이를 이해하고,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없으며, 문화가 다른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고, S. H. Park[3]는 타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 타문화에 대한 존중, 어려움에 처해있는 타인에 대한 존중, 동료의식, 이들과의 생활가능성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를 통해 다문화 수용성은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편견없이 수용하고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 수용성은 훈련을 통해 발달될 수 있는 역동적 개념이다[14]. 가치나 태도 등은 아동기부터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되고 성장하면서 분화 및 심화되는 데[11, 15], 특히 아동 및 청소년기는 가치관을 확립하는 시기로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16]. 아동 및 청소년기에 형성된 다문화 집단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태도는 미래의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문화에 대한 가치가 확립되어가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중요하며[17], 다문화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긍정적 태도를 내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은 아동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노력을 진행해왔다.

2.2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동안 진행되었던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를 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초등학생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다문화밀집 및 외국인접촉[4, 5], 외국방문경험[4, 18, 23], 다문화 교육경험[4, 17, 18], 자아개념 또는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17, 19, 20, 21], 부모의 양육행동[22, 23], 심리적 안녕감[22], 교우관계[24], 교사관계[24, 25], 부

모와의 관계[18, 20], 이웃관계[24, 25], 학업성취도[18, 20, 23], 부모의 교육수준[24], 공동체의식[20, 25]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발견되었다. 초등학생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교사, 친구,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해외방문경험 또는 다문화밀집도에 거주하거나 외국인과의 접촉이 많을수록, 다문화에 관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 다문화 수용성이 높았다.

중학생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교우관계[3, 26, 27], 교사관계[3, 27], 부모의 양육태도[28, 29], 지역사회관계[3, 26, 27], 공동체의식[3], 시민의식[27], 운동, 독서 및 문화예술 활동 참여[27], 자아존중감[28], 부모의 교육수준[15, 30], 다문화 교육경험[31], 사회적 친밀도[31]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공동체 및 시민의식이 높을수록,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의 참여가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다문화 교육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 다문화 수용성이 높았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소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즉,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은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양육태도/행동, 공동체의식, 다문화 교육경험이었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 외국인을 접촉하거나 외국을 방문한 경험, 이웃과의 관계, 학업성취도가 의미있는 변인이지만, 중학생의 경우는 지역사회관계, 시민의식, 문화예술활동 참여, 자아존중감, 사회적 친밀도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문화수용성 및 다문화에 대한 태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동은 각 발달단계별로 정서, 인지, 사회적 기능수준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발달단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32, 33]. J. H. Koo[11]에 따르면,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정도도 나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5학년에 비해 6학년이 다문화 수용성이 낮아졌고, 낮아지는데 작용한 요인으로 학습활동 참여 요인이 작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즉, 5학년과 6학년 모두 학교에서의 인간관계가 높을수

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았지만, 6학년이 인지적 학습활동의 강조는 오히려 다문화수용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를 통해 중2학년에서 고1학년까지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중단연구를 수행한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며, 친구관계와 교사와의 관계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고하였다[16]. 각 단계별 대상별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므로[25],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대상별로 달라져야 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아동청소년패널(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자료 중 초1 패널과 초4패널 자료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아동청소년패널 초1패널과 초4패널은 2010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다단계확립 표집방식을 통해 초1패널 2,342명, 초4패널 2,378명이 조사되었다. 아동청소년패널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8월 현재 2014년 5차까지 데이터가 오픈되어져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다. 아동청소년패널은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 발달해가는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영역을 개인발달 영역과 환경발달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개인발달 영역에서는 신체발달, 지적발달, 사회정서발달, 비행, 생활시간을 조사하고 있으며 발달환경 영역에서는 가정환경, 친구관계, 교육환경, 지역사회 환경, 매체환경, 활동문화 환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패널 중 초1 패널과 초4 패널 5차 데이터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초1 패널의 경우 2,342명 중 아동·청소년과 보호자 모두 5차 패널조사에 참여 안한 269명을 제외한 2,07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초4 패널 또한 2,378명 중 아

동·청소년과 보호자 모두 5차 패널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359명을 제외한 2,019명을 연구대상으로 함으로써 총 연구대상자는 4,092명이었다. 초1 패널과 초4 패널 모두 2010년 조사 당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5차 데이터가 조사된 2014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으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3.2 변수정의 및 측정

3.2.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패널의 다문화수용성 변수를 활용하였다. 다문화수용성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에 대한 내용을 기초로 조사되었으며, 다문화수용성은 총 4점으로 역점수 처리를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3.2.2 독립변수

연구대상들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을 중심으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성별은 남성(1), 여성(2)로 구분하여 분석에 투입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중학교졸업 이하(1), 고등학교 졸업(2), 전문대 졸업(3), 대학교 졸업(4), 대학원졸업 이상(5)로 구분하였다. 건강상태는 연구대상이 또래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건강상태를 판단한 것으로 매우 건강하지 못함(1), 건강하지 못함(2), 건강한 편임(3), 매우 건강(4)로 측정하였다. 해외방문경험은 연구대상의 지난 1년 동안의 외국에 가본 경험으로 지난 1년 동안 외국에 가본 경험이 없음(1)과 있음(2)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가구소득은 보호자가 응답한 결과로 연구대상이 속한 가구의 지난1년 간 세후 소득을 만원단위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성적평가는 지난학기 동안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도덕, 실과, 음악, 미술, 체육 각각의 교과목에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 얼마나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하였는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평가한 성적이 높음을 의미한다. 삶의 만족은 현재 연구대상의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기반으로 질문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런 편이다(4)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교우관계는 친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런 편이다(4)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좋음을 의미하며, 교사관계 또한 4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인식은 연구대상이 동네와 동네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측정한 것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런 편이다(4)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공동체의식은 주변 친구, 자원봉사활동, 기부금 등의 행동을 할 의사여부를 측정한 것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런 편이다(4)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족/단체여행은 지난 1년 동안 가족과 함께 또는 단체를 통해 1박 이상의 여행을 한 경험횟수를 측정하였으며 학교에서 학년 또는 학급 전체가 참가한 수련회는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활동은 지난 1년 동안 음악회, 전시회, 영화, 연극, 뮤지컬 관람 등의 문화활동 경험 횟수를 측정하였다.

4. 분석결과

4.1 다문화 수용성 및 특성 차이

연구대상인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Table 1 참고), 초등학교 5학년은 평균 3.10점, 중학교 2학년은 평균 3.03점으로 초등학교 5학년이 중학교 2학년에 비해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 Level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구분	elementary school 5 th grade	middle school 2 nd grade	χ^2
Mean	3.10	3.03	4.175***
SD	.59	.58	
n	2073	2019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특성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다음의 [Table 2]와 같다. 성별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은 남학생이 1062명(51.2%), 여학생이 1,011(48.8%)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2학년은 남학생이 1,060명(52.5%), 여학생이 959명(47.5%)로 나타나 성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비교한 결과 초등학교

Table 2. Comparative Analysis by Cross-Tabulation Test

		elementary school 5 th grade	middle school 2 nd grade	χ^2
Gender (n=4092)	Male	1062(51.2)	1060(52.5)	.416
	Female	1011(48.8)	959(47.5)	
Mother's Educational Level (n=3930)	Below Middle School	22(1.1)	39(2.0)	61.701***
	High School	864(43.1)	900(46.8)	
	College	477(23.8)	277(14.4)	
	University	579(28.9)	652(33.9)	
	Graduate school	64(3.2)	56(2.9)	
Healthy status (n=4092)	very unhealthy	3(0.1)	4(0.2)	14.533**
	unhealthy	62(3.0)	94(4.7)	
	healthy	1161(56.0)	1188(58.8)	
	very healthy	847(40.9)	733(36.3)	
Overseas Visiting (n=4092)	nonexistence	1773(85.5)	1815(89.9)	18.068***
	existence	300(14.5)	204(10.0)	

$p < .1$, * $p < .05$, ** $p < .01$, *** $p < .001$

5학년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864명(43.1%), 대학교 졸업 579명(28.9%), 전문대 졸업 477명(23.8%), 대학원 졸업 이상 64명(3.2%), 중학교 졸업 이하 22명(1.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2학년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900명(46.8%), 대학교 졸업 652명(33.9%), 전문대 졸업 277명(14.4%), 대학원 졸업 이상 56명(2.9%), 중학교 졸업 이하 39명(2.0%)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연구대상자 본인이 자각하는 건강상태는 초등학교 5학년은 건강한 편이라는 응답이 1,161명(56.0%), 매우 건강 847명(40.9%), 건강하지 못함 62명(3.0%), 매우 건강하지 못함 3명(0.1%)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2학년에서는 건강한 편이라는 응답이 1,188명(58.8%), 매우 건강 733명(36.3%), 건강하지 못함 94명(4.7%), 매우 건강하지 못함 4명(0.2%)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난 1년간 해외방문 경험 유무에 대해서 초등학교 5학년은 300명(14.5%)이 해외방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중학교 2학년은 204명(10.0%)이 해외방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주요한 변인들에 대하여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Table 3 참고). 가구소득은 연구대상자의 보호자가 응답한 연구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지난 1년간의 세

후 소득으로 초등학교 5학년은 평균 약4,928만원, 중학교 2학년은 평균 4,609만원으로 중학교 2학년보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속한 가구의 평균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주관적 성적평가는 지난학기동안 10개의 교과목에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 얼마나 공부를 잘 했다고 생각하였는지를 5점 척도로 측정된 것이다. 초등학교 5학년은 평균 3.81점, 중학교 2학년은 평균 2.91점으로 초등학교 5학년이 생각하는 본인의 주관적인 성적평가가 중학교 2학년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삶의 만족은 현재 연구대상의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기반으로 설문한 결과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초등학교 5학년은 3.43점, 중학교 2학년은 평균 3.03점으로 초등학교 5학년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교우관계는 친구 및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교우관계는 초등학교 5학년이 평균 3.27점, 중학교 2학년이 평균 3.14점으로 중학교2학년 학생들에 비해 초등학교 5학년의 교우관계가 전반적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는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좋음을 의미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은 평균 3.23점, 중학교 2학년은 평균 2.93점으로 초등학교 5학년의 교사관계가 더

Table 3. Comparative Analysis by T-Test

		n	M	SD	t
Family Income	Elementary	2032	4928.51	2505.80	4.261***
	Middle	1957	4609.63	2216.88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Elementary	2073	3.81	.64	36.756***
	Middle	2000	2.91	.91	
Life's Satisfaction	Elementary	2073	3.43	.57	22.332***
	Middle	2019	3.03	.59	
Peer Relationship	Elementary	2073	3.27	.44	16.172***
	Middle	2018	3.14	.41	
Teacher Relationship	Elementary	2073	3.23	.59	15.890***
	Middle	2018	2.93	.63	
Community Awareness	Elementary	2073	3.16	.51	19.055***
	Middle	2019	2.86	.49	
Spirit of Community	Elementary	2073	3.11	.57	9.079***
	Middle	2019	2.96	.54	
Family/Group Travel	Elementary	2071	4.05	5.21	12.078***
	Middle	2018	2.34	3.73	
Cultural Activity	Elementary	2073	4.45	5.23	.402
	Middle	2015	4.37	5.58	

*p<.05, **p<.01, ***p<.001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인식은 연구대상이 동네와 동네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측정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인식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분석결과 초등학교 5학년(평균 3.16점)이 중학교 2학년(평균 2.86점)보다 지역사회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의식은 주변 친구, 자원봉사활동, 기부금 등의 행동을 할 의사여부를 측정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초등학교 5학년은 평균 3.11점, 중학교 2학년은 평균 2.96점으로 공동체의식 또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단체여행은 지난 1년 동안 가족과 함께 또는 단체를 통해 1박 이상의 여행을 한 경험횟수를 측정하였으며 학교에서 학년 또는 학급 전체가 참가한 수련회는 제외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지난 1년 동안 평균 4.05회의 여행을 경험하였으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평균 2.34회의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문화활동은 지난 1년 동안 음악회, 전시회, 영화, 연극, 뮤지컬 관람 등의 문화활동 경험 횟수를 측정한 것으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4.2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의 목적인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다문화수

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다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문화수용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상관관계 계수의 크기 확인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의 정도를 통해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공차한계(Tolerance)의 가장 낮은 값은 .515이며 분산팽창요인(VIF)의 가장 큰 값은 1.940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2학년의 경우 공차한계(Tolerance)의 가장 낮은 값은 .603, 분산팽창요인(VIF)의 가장 큰 값은 1.659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연구모형의 추정치 왜곡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 주관적 성적평가, 삶의 만족, 교우관계, 교사관계, 지역사회인식, 공동체 의식, 문화활동 경험, 해외방문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참조). 즉,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의 성적이 높은 편이라고 평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가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인식,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며, 지난 1년간 문화활동 경험 횟수가 많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지지만, 해외방문경험이 없을수록 다문화

Table 4. Factors Influencing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elementary school 5 th grade			middle school 2 nd grade		
	B	β	t	B	β	t
(Constant)	.768		4.005*	1.129		9.458***
Gender	.041	.036	1.904	.038	.033	1.611
Mother's Educational Level	.025	.040	2.042*	-.028	-.048	-2.120*
Family Income	-1.479	-.006	-.322	6.335	.024	1.055
Healthy Status (n=4092)	.012	.012	.591	.015	.015	.671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069	.074	3.440**	-.003	-.004	-.206
Life's Satisfaction	.057	.055	2.556*	-.070	-.071	-3.042**
Peer Relationship	.078	.058	2.281*	.167	.117	4.523***
Teacher Relationship	.086	.087	3.999***	.066	.0072	3.007**
Community Awareness	.100	.086	2.849***	.032	.027	1.169
Spirit of Community	.402	.039	17.356***	.430	.402	16.146***
Family/Group Travel	-.002	-.020	-.994	-.014	-.087	-4.121***
Cultural Activity	.005	.047	2.406*	.002	.021	1.020
Overseas Visiting	-.064	-.038	-2.040*	.029	.016	.746
R ²		.348			.252	
Adjusted R ²		.343			.247	
F		80.367***			47.841***	

*p<.05, **p<.01, ***p<.001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 삶의 만족, 교우관계, 교사관계, 공동체의식, 가족/단체여행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5학년과 비교해볼 때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우관계와 교사관계,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았고, 지난 1년간 가족/단체여행의 횟수가 적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초등학교와 중학생 4,092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수준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알게 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수용성의 정도에 있어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의 다문화 수용성이 더 높았다. 초등학교의 다문화 수용성이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성보다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는 J. H. Koo[11]와 S. H. Park[3]의 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문화수용성이 감소하였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가구연간소득, 주관적 성적평가, 삶의 만족도, 지역사회인식, 공동체의식, 가족 및 단체여행의 경험, 문화활동 경험에 있어서 초등학교 5학년이 중학교 2학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고, 교우관계 요인만 중학교 2학년이 초등학교 5학년보다 높았다.

둘째,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요인은 교우관계, 교사관계, 공동체의식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의식이 증가할수록, 교우관계와 교사관계가 좋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였다[3, 20, 24, 27, 34, 37]. 즉, 선행연구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행동이 긍정적인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다문화 교육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과 가구소득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모두에게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이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3, 15, 20, 24, 35]와는 다른 결과이지만, 성별이 유의미하지 않았던 연구들과는 일치하고 있어서, 성별의 영향력은 다시금 재조명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가구소득 요인은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도 선행연구의 결과[35]와 일치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특이한 점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 삶의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선행연구의 결과와 다르다는 점이다.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초등학교와 중학생의 차이가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20, 24]와 일치하며,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수용하고 관용적 태도를 향상시키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24]. 그런데,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삶의 만족도 영향은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선행연구[27]와는 상반된다. 이는 아동과 달리 청소년은 부모로부터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교우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학생 부모의 교육수준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 미약할 수 있다. 즉, 부모가 교육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수용하고 관용적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가구소득, 직업지위, 교육수준)이 부모-자녀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자녀관계가 교사, 교유, 자아개념, 학업성취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38]를 볼 때, 부모의 교육수준이 부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를 통해 다문화 수용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다문화 수용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부모-자녀관계로부터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는 아닌지 부모-자녀 관계

를 비롯한 매개요인 검증을 통해 부모의 교육수준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연구에 대해 다시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중학생의 삶의 만족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게 나타난 점은 또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학업성취, 친구관계, 교사관계, 가정경제수준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데[38, 39],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본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들에게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삶의 만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결과[40]를 볼 때,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학업성취기준이 높거나 높은 압력을 자녀에게 가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상황이 삶의 만족과 공동체 의식 등에 대하여 경쟁적인 환경에서 다문화 수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3]. 또한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학업에 대한 성취를 위한 스트레스와 경쟁압력이 가중되면서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을 낮게 인식하기도 한다[40]. 이러한 결과는 삶에 대한 만족이 낮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돌아보게 하며, 자신보다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공동체 의식으로 발전시키고 다문화 수용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사회적 바람직성의 응답을 한 결과는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은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외국인과의 접촉이 많거나 외국을 방문한 경험이 많을수록, 이웃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았고, 중학생의 경우는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시민의식이 높을수록, 문화예술활동의 참여가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친밀도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5학년은 중학교 2학년과 달리 주관적인 성적평가[34], 지역사회 인식[3, 24, 25, 26], 문화활동경험[18, 20, 25], 해외방문경험[4]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발견되었고, 중학교 2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과 달리 가족/그룹과의 여행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5학년은 성적이 좋을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문화활동경험이 많을수록, 해외방문경험이 없을수록 다문화 수

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해외방문경험요인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1년간의 해외방문경험 유무를 다루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까지 고려할 수 없었던 자료의 한계로 인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방문경험은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4, 41, 42]와 단순한 외국인과의 접촉경험이나 해외방문 등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상이한 효과를 표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34]를 볼 때 이후 연구에서 좀 더 면밀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다문화 수용성 및 공동체의식, 지역사회 인식, 교우관계, 교사관계, 삶의 만족도 등 전반적인 주요 변인이 초등학교 5학년에 비해 중학교 2학년에 낮은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중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로 하며,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관계개선 및 삶의 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교우관계, 교사관계, 공동체의식, 가족/그룹과의 여행으로 발견된 점을 보면, 다양한 형태의 여행 및 활동프로그램을 통해 교우관계 증진과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학생들에게 학습과 같은 인지적 활동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방법보다는 삶의 만족도와 다양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으면서도 효과적인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교우관계에 관심이 증가하는 청소년시기이므로, 또래와의 활동을 중심으로 또래에 대한 관심이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과 공동체의식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중심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이다. 직접적인 다문화 교육에 대한 활동으로 내용을 구성하기보다는 또래, 교사,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험활동을 통한 간접적 교육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교우관계, 교사관계, 공동체 의식, 주관적인 성적, 지역사회 인식, 문화활동경험, 해외방문경험 요인이 발견되었다. 초등학생은 발달단계상 학교생활에서의 학습 성취를 통해 유능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단계에 해당된다. 유능감은 학업성취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서의 성취감을 통해 획득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직접적인 체험 활동, 공동체 의식과 교우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 등 다양한 문화활동경험을 제공하여 성취감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유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학업성취 등 인지적인 습득을 통해 유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문화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에 대한 경험과 그에 대한 긍정적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매체활용교육,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접근이 통합적, 직접적인 교육내용으로 전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 및 다양한 교육 자료의 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Homepage, http://www.kostat.go.kr/portal/korea/kor_ki/1/1/index.action?bmode=read&cd=S004002
- [2] M. S. Choi, An Analysis of Differences and Effect Factors i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between Teachers and Adolescents. Doctoral Thesis of Dong A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3.
- [3] S. H. Park, A Longitudinal Analysis on Multicultural Perception of Young People Using Latent Growth Model. *Multicultural studies*, vol. 3, no. 2, pp. 99-131, 2014.
- [4] H. J. Kim, A Study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Childre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4, no. 12, pp. 449-468, 2014.
- [5] Y. S. Han, B. K. Kim, and S. A. Jeon, Moderating Role of Highly-Concentrated Multicultural Neighborhood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Family Factors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1, no. 12, pp. 97-125, 2014.
- [6] J. H. Kim, Improving Multicultural Attitudes of Korean Adolescents in Response to the Crisis of Multiculturalism;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Exploration of Factors Affecting Multicultural Receptivity*, *Crisisonomy*, vol. 8, no. 6, pp. 183-208, 2012.
- [7] B. S. Hong, and Y. A. Ah, The Study of Adolescent's Social Distance to Foreigners. *Social Science Research*, vol. 27, no. 3, pp. 165-187, 2011.
- [8] K. M. Yang, and J. H. Park, A Longitudinal Stud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1.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3.
- [9] I. J. Yoon, and Y. H. Song, South Koreans' Perception of National Identity and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vol. 23, no. 1, pp. 143-192, 2011.
- [10] L. Hunter, and M. J. Elias, Interracial Friendships,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Social Competence: How Are They Related?.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0, no. 4, pp. 551-573, 2000. DOI: [http://dx.doi.org/10.1016/S0193-3973\(99\)00028-3](http://dx.doi.org/10.1016/S0193-3973(99)00028-3)
- [11] J. H. Koo, The Grade Difference in Community Spirit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vol. 47, no. 1, pp. 1-24, 2015.
- [12] M. H. Garcia, An Anthropological Approach to Multicultural Diversity Training.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vol. 31, no. 4, pp. 490-504, 1995. DOI: <http://dx.doi.org/10.1177/0021886395314013>
- [13] M. J. K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Inventory for Korean Children. Doctoral Thesis of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0.
- [14] J. M. Bennett, and M. J. Bennett, Develop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An Integrative Approach to Global and Domestic Diversity. In D. Landis, J. M. Bennett, M. J. Bennett (Eds.), *Handbook of Intercultural Warning*(3rd ed.). Thousand Oaks, CA: Sage, 2004. DOI: <http://dx.doi.org/10.4135/9781452231129.n6>
- [15] J. Y. Lee, A Study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3.
- [16] T. H. Lee, S. K. Lee, and Y. S. Han,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Teacher Relationship, Peer Relationship,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mong Adolescents in Korea: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vol. 22, no. 1, pp. 65-85, 2016. DOI: <http://dx.doi.org/10.20406/kjcs.2016.02.22.1.65>
- [17] E. H. Jang, and J. K. Eo, Relationship among Children's Self-Concept, Cross-Cultural Experiences,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vol. 21, no. 3, pp. 289-305, 2013.
- [18] S. H. Park, and S. A. Kim, Cultural Experience and Multicultural Awareness in Early Adolescent: Relationship among Openness, Acceptance, and Respect-Focused on G Metropolitan C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9, no. 7, pp. 27-50, 2012.
- [19] J. A. Lee, and Y. J. Lee, Relationship of Self-esteem and Empathic ability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Elementary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6, no. 6, pp. 73-91, 2016.

- [20] K. K. Kim, and Y. J. Hwang, Determinant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 39, no. 1, pp. 87-117, 2012.
- [21] J. W. Berry, *Fundamental Psychological Processes in Intercultural Relations. Handbook of Intercultural Training*. Thousand Oaks. CA: Sage, 2004.
- [22] K. S. Jang, Impact on Multicultural Acceptance of Child Rearing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ent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3, pp. 1355-1366,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3.1355>
- [23] I. S. Jang, and H. J. Lee, Factors to Influence Multicultural Aware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vol. 3, no. 1, pp. 55-87, 2010.
- [24] G. N. Lee, Y. E. Kim, and K. Y. Lee, The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Prim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vol. 26, no. 3, pp. 1-14, 2013.
- [25] J. H. Lee, and K. K. Kim, Determinant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52, no. 4, pp. 55-81, 2014.
- [26] S. K. Lee, and S. M. Jeon, Factors that have impacts on the Multiculture Accepta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Focused on Self-Esteem, Community Closeness, Peer Attachment.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6, no. 4, pp. 103-121, 2014.
- [27] J. H. Lee, and K. K. Kim, Determinant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 23, no. 1, pp. 53-77, 2013.
- [28] J. Y. Park, and E. M. Park,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of Parents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 no. 3, pp. 233-251, 2015.
- [29] J. H. Park,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Youth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on Multicultural Perception. Master's Thesis of Su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4
- [30] M. H. Lee, J. H. Kim, J. S. Song, and H. K. Moon, Perceptions of Multicultural Family Life Culture and Multicultural Efficacy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Daejeo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ractical Arts Education*, vol. 24, no. 2, pp. 17-28, 2012.
- [31] S. W. Chung, and J. C. Jung,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Educational Experience and Social Distance on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of Adolescent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vol. 5, no. 1, pp. 51-68, 2012.
- [32] S. Y. Yoon, H. K. Yu, and Y. S. Cho, The Development of a Group Counseling Program to Improve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Higher Grade.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 22, no. 4, pp. 171-185, 2013.
- [33] F. E. Aboud, *Children and Prejudice*. New York: Blackwell, 1988.
- [34] J. H. Lee, H. J. Park, and K. K. Kim,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Adolescent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 41, no. 3, pp. 5-34, 2014.
- [35] Y. J. Park, and J. E. Lee, Factors that have Impacts on the Multiculture Acceptance of Juvenile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no. 24, pp. 285-310, 2013.
- [36] J. A. Lee, and Y. J. Lee, Relationship of Self-esteem and Empathic ability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Elementary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6, no. 6, pp. 73-91, 2016.
- [37] B. E. Seo, and H. M. Jo, and M. Y. Kim,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Multicultural Contents Studies*, no. 19, pp. 179-207, 2015.
- [38] K. H. Yi, and K. K. Kim, Determinants of Subjective Quality of Life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 23, no. 3, pp. 139-168, 2013.
- [39] J. H. An, Y. D. Yun, and H. S. Lim, The Life Satisfaction Analysis of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Dat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2, pp. 197-08, 2016.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6.14.2.197>
- [40] J. H. Oh, and H. Y. Seon, The Study on the Factors Related to Academic Stres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4, no. 3, pp. 1981-1994, 2013.
DOI: <http://dx.doi.org/10.15703/kjc.14.3.201306.1981>
- [41] J. Dixon, K. Durrheim, and C. G. Tredoux, Beyond the Optimal Contact Strategy: A Reality Check for the Contact Hypothesis. *American Psychologist*, no. 60, pp. 697-711, 2005.
DOI: <http://dx.doi.org/10.1037/0003-066X.60.7.697>
- [42] C. Edmonds, and M. Killen, Do Adolescents' Perceptions of Parental Racial Attitudes Relate to Their Intergroup Contact and Cross-race Relationship?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 vol. 12, no. 1, pp. 5-21, 2009.
DOI: <http://dx.doi.org/10.1177/1368430208098773>

은 선 경(Sun Kyoung Un)

[정회원]



- 1998년 8월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10년 2월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 2009년 3월 ~ 2013년 2월 : 백석예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K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교육,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국제사회복지, 가족복지